

마곡사 이용안내

이용시간 연중무휴 개방
이용요금 어른 3,000원 / 청소년 1,500원 / 경로자 무료
교 통 공주버스터미널에서 770번 승차 ↔ 마곡사 하차 (버스종점)
40분 소요, 배차간격 50분 ~ 1시간 20분
문 의 마곡사종무소 041) 841-6220~3

템플스테이

정규 프로그램 소개

예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부처님의 자비의 미소와 지혜의 맑은 눈빛을 닮겠다는 수행을 서원합니다.

참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진실한 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발우공양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자연과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로움을 느끼며 밥 한알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발우공양은 스님들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운력 노동의 값진 경험을 하며 땀 한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솔바람 길 걷기 마곡사 솔바람 길을 따라 혼자 조용히 걷습니다. 숲 내음, 바람소리 맞으며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스님과 대화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스님의 마을을 풍경을 엿봅니다. 나의 삶, 나의 이야기의 톨로 스님을 초대하여 교감을 나눕니다.

108염주 꿰기 한 알 한 알 염주를 꿰면서 108배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바로 보고, 스스로 참회하며 건강한 삶, 성숙한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을 세웁니다.

템플스테이(산사의여유) 참가 안내

마곡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magoksa.templestay.com
전화 상담 및 예약 041) 841-6226

| | |
|------------------|--|
| 템플스테이 세 가지 유형 | 휴식형 산사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 정진하며 머무는 것 |
| | 체험형 일정한 프로그램 안에서 단체 수련을 하는 것 |
| | 당일체험(2시간 정도) 사찰안내, 단주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



마곡사 토요 무대

사업기간 7~8월 매주 토요일 19:30, 8회
사업장소 마곡사관광지 야외무대
주 관 마곡사상인연합회

백범 김구선생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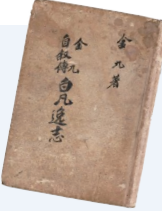
- 1946년 마곡사 방문

백범당(白凡堂)

백범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며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金九 1876~1949)선생이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나루에서 일본군 장교를 죽이고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하여 마곡사에 은거할 때 원종(圓宗)이라는 법명으로 잠시 출가하여 수도하였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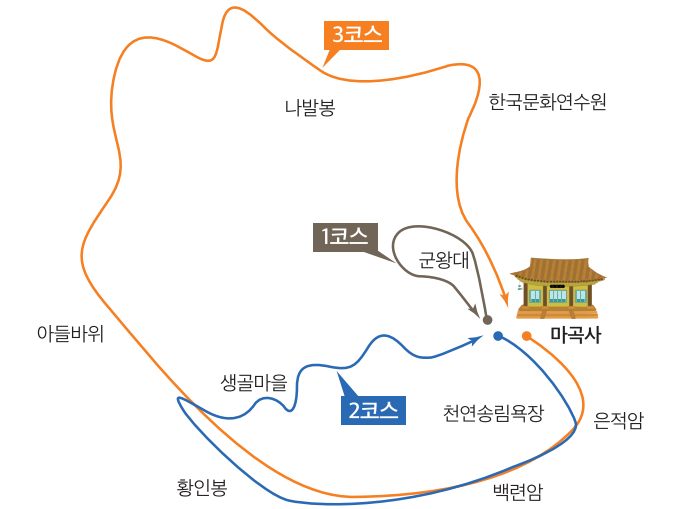
백범 김구선생은 1898년 마곡사를 떠난 후, 근 50년 만에 돌아와 대광보전 기둥에 걸려있는 주련의 却來觀世間 猶如夢中事(각래관세간 유여몽중사: 돌아와 세상을 보니 마치 꿈 가운데 일 같구나)라는 능엄경에 나오는 문구를 보고 감개무량하여 그 때를 생각하며 한그루의 향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도 백범당 옆에 푸르게 자라고 있다.

나는 이 서방과 같이 마곡사를 향하여 계룡산을 떠났다.(중략)
마곡사 앞 고개에 올라선 때는 벌써 황혼이었다. 산에 가득 단풍이 누룻불갓하여 (중략) 감회를 갖게 하였다. 마곡사는 저녁 안개에 잠겨 있어서 풍진에 더러워진 우리의 눈을 피하는 듯하였다. 텅, 텅 인경이 울려온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소리다. 일체 번뇌를 버리라 하는 것 같이 들렸다.




- 『백범일지』 중에서 -


마곡사 한바퀴 둘러보기





- 1 코스 : 백범 명상길 (산책코스 3km, 소요시간 50분)**
마곡사(백범기념관, 기념식수) → 김구선생 석발터(재현) → 토굴암 → 군왕대(기 체험장) → 마곡사
- 2 코스 : 백범길 (트래킹코스 5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마곡사 → 천연송림욕장 → 은적암 → 백련암(백범이야기) → 향인봉 → 생골마을(약초마을) → 마곡사
- 3 코스 : 송림숲길 (송림숲길 11km, 소요시간 3시간 30분, 등산포함 풀코스)**
마곡사 → 천연송림욕장 → 은적암 → 백련암 → 생골마을 → 아들바위(솔잎 용단길) → 나발봉(향토숲길) → 전통불교문화원 → 다비식장(죽음체험장) → 장군샘 → 토굴암 → 군왕대 → 마곡사

공주시 다국어 관광안내 서비스
스토어에서 “**공주랑(GONGJURANG)**”을 검색하세요!

 App Store

 Google Play



 **공주시**
GONGJU CITY

(3252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대표전화 : 041-841-6220~3 | 팩스 041-841-6227





마곡사 유래

마곡사 입지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중 제6교구 본사인 천년고찰 마곡사는 100여개 사암을 관할하는 충남불교 대본산(大本山)의 하나이며, 특히 황벚꽃, 산수유, 자목련 등 이 꽃을 피우는 봄이 가장 아름답다 하여 봄은 마곡사, 가을은 갑사라는 뜻으로 '춘마곡 추갑사(春麻谷 秋甲寺)'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천년고찰이다.

마곡사 유래

‘마곡사’라는 절 이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유래가 내려온다. 첫째, 청양의 장곡사(長谷寺), 예산의 안곡사(安谷寺)와 더불어 ‘삼곡사(三谷寺)’라 불렀는데, 이 중 마곡사는 ‘삼골’이라하여 ‘마곡사(麻谷寺)’라 불렀다는 것이다. 둘째, 신라의 보철화상이 설법(說法)을 할 당시 모인 사람들이 마치 삼발의 삼대가 골짜기를 이룬 것 같다고 하여 마곡사라 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개창자인 신라 무염선사(800~888)가 중국 남종선의 ‘마곡 보철선산’의 법을 이어와 마곡사라 불렀다고 하는 설이 있다.

마곡사 창건 및 중건

마곡사『사적입안』에는 신라 자장율사가 정관(貞觀) 17년(643)에 당나라에 다녀온 뒤, 선덕여왕 때에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다음 7대 가람을 창건하였는데, 마곡사가 그 세 번째라고 한다. 『사적입안』에는 “최초 창건이 자장이요, 재조(再造)는 보조이며, 삼건(三建)은 범일이요, 사수(四修)는 도선이며, 오성(五成)은 각순이다.”라 하였다. 이로보아 마곡사는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이 함께 연관된 선종사찰(禪宗寺刹)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다. 근세에는 만공선사가 마곡사 주지로 있으면서 31본산주지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총독 미나미(南次郎)의 불교정책을 꾸짖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한다. 2018년 6월 30일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本寺)이다. 2018년 6월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오층 석탑 (보물 제799호)



마곡사 오층 석탑 조성 시기는 원나라 간섭기였던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로 추정된다. 탑의 전체적인 형상은 평면의 폭이 좁은 반면 탑신의 높이가 높아 세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이라고 할 수 있다. 탑의 전체높이는 8.76m 이고, 상륜부에 청동제의 풍마동(風磨銅)인 금동보탑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원나라 말기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은 양식이라 전한다. 이러한 양식의 탑은 현재 한국, 인도, 중국 등 세계에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귀중한 탑이기도 하다. 현재 보물 제79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보(國寶)로 승격을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영산전 (보물 제800호)



영산전(靈山殿)은 세조대왕이 ‘만세불망지지(萬世不忘之地)’라 극찬하고 풍수지리가들이 천하의 대혈이라 감탄하는 군왕대의 맥이 흐르는 곳이다. 세조대왕이 마곡사에 은신하고 있던 매월당 김시습을 만나러 왔으나, 김시습은 부여 무량사로 거처를 옮긴 뒤라 김시습을 만나지 못한 세조가 절을 떠날 때 ‘매월당이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연을 타고 갈 수 없다.’하여 타고 온 연을 징표로 남겨두고 소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세조가 타고 왔던 연이 아직까지도 마곡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영산전은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우측에는 수선사, 좌측에는 선원인 매화당이 자리하고 있다. 입시·승진 등의 발원을 가진 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10월 말 경에 군왕대제가 열린다.

대웅보전 (보물 제801호)



대웅보전은 마곡사 경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풍수지리상 마곡사의 주맥이 내려오는 길목에 있다. 원래의 건물은 임진왜란(1592) 때 불타 없어졌고, 현재 이 건물은 1651(효종 2)년에 각순대사(覺淳大師)와 공주목사(公州牧使) 이주연(李奏淵)이 다시 지은 것이다. 재건 당시에는 금당(金堂)이 용도가 아니라, 경전을 보관하는 대장전(大藏殿)이었으나 언제 현재의 용도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아래층과 측면 3칸, 정면 3칸으니 위층으로 구성된 중층 목조 건물이다. 대웅보전 편액은 신라시대 명필 김생의 글씨다.

대광보전 (보물 제802호)



해탈문과 천왕문을 지나 북원으로 진입하면, 5층석탑 뒤로 마곡사의 주불을 모신 대광보전(大光寶殿)이 위치하고 있다. 대광보전은 17세기 중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충청우도 공주판지 서령 태화산 마곡사 대광보전 중창기(충청우도공주)에 따르면 1782년 대화재로 소실된 후 제봉당 체구를 중심으로 재건이 시작되어 1785년 완공되었다고 전한다. 대광보전은 3단의 자연석기단 위에 세워진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축물이다. 대광보전 편액은 표암(豹菴)이라는 낙관으로 보아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글씨다.